**[현대제철]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기획**

**1. 자신의 성장과정에 대해 서술하여 주십시오.**

일곱살 때 부모님의 귀농으로 인해 농촌생활을, 스무살이 되어 서울로 대학을 왔을 때에는 도시생활을, 교환학생을 떠나서는 외국생활이라는 다양한 사회에서의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2. 본인 성격의 장단점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저의 성격의 장단점은 모두 '자존심'에서 나옵니다. 자존심이 센 저는 제 스스로가 만족할 때까지 맡은 바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또한 '내 일'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스스로를 지나치게 지치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어 대학시절 동안 경험한 동아리나 단체에서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닌 팀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노력했습니다.

**3. 자신의 사회활동 및 대외활동에 대해 서술하여 주십시오.**

저의 가장 대표적이고 꾸준한 대외활동은 교내 기숙사인 관악사 자치회에서 3년 6개월 간 기획부, 미디어부, 총무(회계 겸임), 부회장을 역임해 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생복지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해 보며 팀으로서의 협업이나 의견조율을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4. 현대제철에 지원하게 된 동기 및 포부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제가 현대제철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현대제철이 '새로운 철강시대의 리더'라는 비전을 이루는 데 기획업무를 통해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닌, 그 회사의 가치까지 팔아야 하는 요즈음, 감성과 이성의 시너지를 갖기 위해 노력해 온 저의 제반 경험들이 '영혼 있는 기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5. 본인이 해당직무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경험 전공 등을 연계하여 서술하여 주십시오.**

제가 우선적으로 기획을 지원한 이유는 저의 전공 때문입니다. 인문학 중 가장 과학적으로 분석적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담아 사회적 함의를 제시하는 사회과학을 전공하며 저는 분석 속에 가치를 담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분석도 필요하지만 결론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내야 하는 저의 전공은 회사의 '숲'을 그려내는 기획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공수업이나 논문공모전에서 스스로 주제를 잡고 논문을 작성해 본 많은 경험들은 위와 같은 모호한 말들을 체득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타트업 기업에서 생소한 문화컨텐츠 부문의 정보를 빠르게 찾아 스스로 학습한 뒤 대표님께 설명드려야 했던 경험들은 빠른 정보검색능력과 정보소화력, 요약정리능력을 갖추게 해 주었습니다.

**6. 현대제철 자동차그룹의 핵심가치(고객 최우선, 도전적 실행, 소통과 협력, 인재존중, 글로벌 지향)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을 PR하여 주십시오**

저는 '소통과 협력(collaboration)'의 핵심가치를 수행하는 데 가장 걸맞는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뿐만 아니라 대학시절 동안 매년 빠지지 않고 리더 자리를 경험해왔던 저는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한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때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역시 중요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사람과 협력해야 하는지를 적절히 선택하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기획자로서 필수적인 역량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터는 사회적인 중요한 전환점에는 다양하고 약한 연결(weak tie)의 영향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타부문 및 협력사에 대한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나눔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소통과 협력은 기획자에게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저는 이를 갖추기 위해 weak tie를 형성하는 데 뛰어난 저의 역량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7. 자신의 경험 중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며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다하였는지 서술하여 주십시오**

제 경험 중 가장 힘들었던 일은 2012년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날 때 부모님께 금전적 도움을 바랄 수가 없어(태풍 곤파스 여파) 제 스스로 1,700여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해야 했던 일입니다. 풍부한 과외경험과 실제 성적상승 효과를 항상 보여주었던 저는 과외로 돈을 쉽게 벌 수 있었으나, 이것이 저의 성장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 뒤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쌓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학기 중에는 과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교내 근로장학생, 스타트업 기업의 리서치 업무, 전공서적 번역 일을 학교생활과 병행하였고, 방학 중에는 삼성 드림클래스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신청해 두었던 교내 교환학생 장학금도 받게 되어 저는 계획했던 액수를 달성하여 부모님의 추가적인 도움 없이 자립적으로 10여개월 간 외국에서의 학업을 무사히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명언을 내재화하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